

전시시설 안내

1F



전시실

채만식 선생의 삶을 정확한 고증과 검증을 통해 보다 사실감있게 재현하여 60여년전 작가의 삶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

자료보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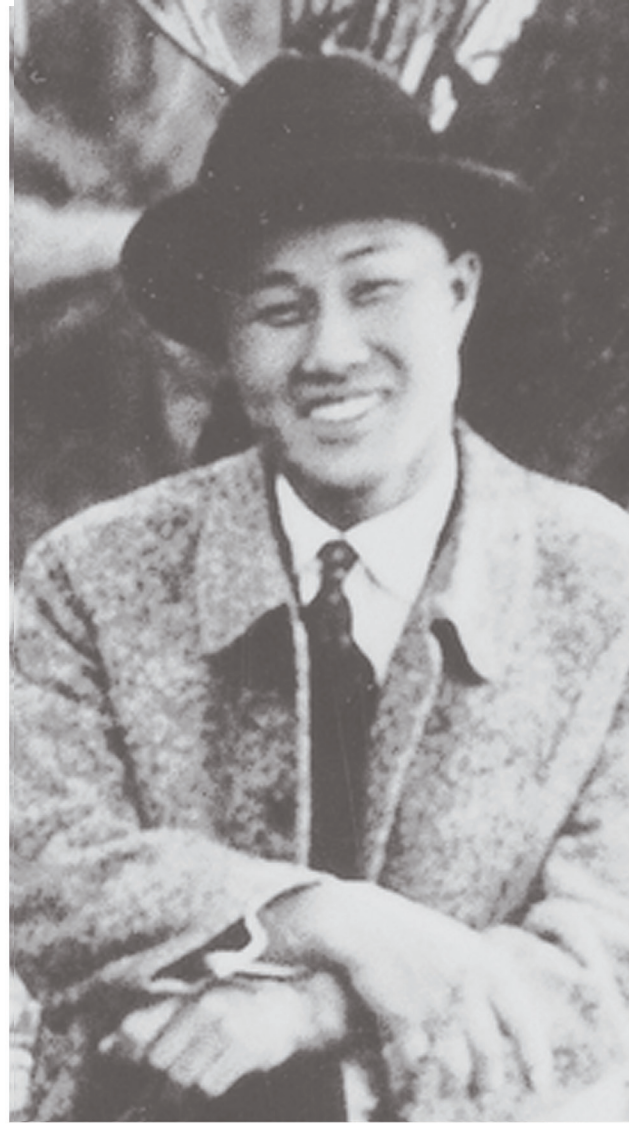
채만식 선생에 관한 자료 및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

2F



영상·세미나실

좌석 50석, 독서감상회 등 강사와 함께 그룹 토의를 할 수 있으며, 채만식 선생 관련 영상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채만식 문학관

• 개관시간 안내

-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
- 입 장 : 폐관 30분전까지 입장
- 휴 관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임시휴관일

• 시설이용 안내

- 관람 및 영상 세미나실 사용 무료
- 영상세미나실 이용시 3일전까지 신청

 **군산시** | 전라북도 군산시 강변로 449(내흥동 285)
Tel. 063.454.7887 Fax. 063.454.7889

희망동대 군산
Dream Hub
GUNSAN

채만식 문학관

Chae, ManSik Literary Hall



 **군산시**

백릉 채만식 연보

1902. 07. 2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동상마을에서 6남매 중 5남으로 출생. 아버지 채규섭, 어머니 조우섭, 남자로서는 막내인셈이다.
1910.	임피보통학교(5년제) 입학. 6, 7세부터 집에서 차린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으며, 보통학교에 다니면서도 계속 한학을 공부하였다.
1918.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4년제) 입학(당시는 사립학교)
1920. 04. 21	중앙고보 3학년때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임피와는 16km거리)에 사는 은씨댁 규수 은선흥(다시 20세, 채만식보다는 한 살 위)과 혼인. 이 해 8월 15일 혼인신고 마침.
1922. 03. 19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제3회) 동년 4월 14일 일본조도전대학 부속 제일조도전고등학교학원문과 입학 ▶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 문과입학. 와세다대학 재학중 축구선수로도 활약.
1923.	일본 관동대지진과 갑작스런 가난으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업중단 귀국. 처녀작(과도기) 총독부 검열에서 출판금지 처분. 1973년도에 출판.
1924.	제일조도전고등학교 장기결석으로 (2월 1일자로 제적처분 받음. 경기도 강화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취직하였다. 단편「세길로」가 이광수 추천으로 『조선문단』 3호 (1924년 12월호) 게재 됨으로써 문단에 데뷔. 이 해 장남 무열 출생
1925. 07.	동아일보사 정치부 기자로 입사. 단편 「불효자식」이 『조선문단』 2권 10호에 또 추천됨
1928.	차남 계열 출생
1937.	조선일보에 장편 「탁류」를 연재(37. 10. 12~38. 05. 17)
1939.	『채만식 단편집』 (조선문고 2부 제7책 학원사) 출판.
1940.	장편집 『태평천하』 명성사에서 출판
1942.	3남 병훈 출생.
1943.	중편집 『배비장』이 박문서관에서 출판. 단편집 『집』(조선일보사) 출판.
1945.	부친 별세. 장남 무열이 병사하다. 4월 향리인 전북 임피로 낙향. 8.15 광복을 맞이하다. 광복직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가 75로 이거
1946.	중편집 『허생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협동문고 4-1) 작품집 『제향날』 (박문출판사) 출판. 향리인 전북 임피로 다시 낙향.
1947.	모친 조우섭씨 별세. 4남 영훈 출생. 서울타임스 간행 『조선대표 작가 전집』 8권에 「여자의 일생」, 「모색」, 「사호일단」이 수록됨. 장편집 『아름다운 새벽』(박문출판사) 출판되다.
1948.	단편집 『잘난 사람들』 희곡집 『당랑의 전설』출판. 『백민』에 대일협력 회개반성 작 「민족의 죄인」 발표.
1949.	『탁류』가 민중서관에서 다시 출판되다. 1949. 03.01. 주소가 종로구 통의동 35의 1로 나와 있다. (백민 2, 3월 합병호) 다시 이리시(현 익산시) 주현동 이거.
1950.	봄에 익산시 마동 269번지로 이거. 이 해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숙환으로 영면하다. 유택은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계남마을에 있음.

채만식의 문학

채만식은 다작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장·단편 소설만 해도 200여편에 이르며, 기타 동화나 수필 등 다양한 장르까지 포함하면 생전에 1천여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대표작품

단편 레드메이드인생(신동아 연재 1934. 5~7), 치숙(동아일보 연재 1938)
중편 배비장 (반도의 빛 연재 1942. 2~11), 정거장 근처(여성 연재 1937. 3~10)
장편 탁류(조선일보 연재 1937. 10~ 1938. 5.), 태평천하(조광 연재 1938. 1~9)

레디메이드인생 1934년 《신동아》지(誌).

1933년까지 이 작가가 발표한 희곡 《사라지는 그림자》, 단편 《화물자동차》 《인형의 집을 나와서》 등 일련의 작품은 프로문학에 대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쓴 것이었으나, 이 《레디메이드 인생》과 《치숙(痴叔)》 등에서는 당시의 한국 지식인의 운명과 그 곤경을 제재로 삼으면서 풍자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경제공황기에 실직 중인 P는 이력서를 들고 이곳 저곳 찾아 다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나서 자신이 인텔리인 것을 원망, 책을 잡혀 친구들과 선물집 카페·색주가로 돌아다니며 실업자의 울분을 터뜨린다. 아들만은 자신과 같은 인텔리 실직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보통학교도 안 마친 애를 잘 아는 인쇄소에 맡기고 돌아오면서 “레디메이드(기성품) 인생이 비로소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라고 P는 혼자 중얼거린다. 지식인 실업자의 생태와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가의 대표작이다.

탁류 1937년 12월부터 1938년 5월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

모함과 사기·살인 등 부조리로 얽힌 1930년대의 사회상을 풍자와 냉소로 엮은 작자의 대표작이다. 군(郡)의 고용원을 지낸 정주사의 딸 초봉이는 정주사가 미두(米豆)에 미쳐 가세가 기울어지자 약국 제제당에서 일을 했다. 나이가 찬 데다 용모가 예쁜 초봉이를 탐내는 남자가 많았다. 초봉이를 서울로 유인하려던 약국 주인 박제호는 그의 아내의 훼방으로 실패한다. 매파에게 홀린 부모의 권고로 초봉이는 호색가인 은행원 고태수와 결혼한다. 그러나 꿈추인 장형보의 흥제로 남편을 잃고 꿈추에게 몸을 버린다. 무작정 서울로 가던 초봉이는 박제호의 유혹으로 그의 첩이 된다. 얼마 후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딸을 낳는다. 장형보가 자기의 아이라면서 아이와 함께 초봉이를 빼앗아간다. 초봉이는 마침내 장형보를 살해하고 경찰서에 자수한다.

태평천하 조광연재 193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5장으로 구성.

최초의 제목은 《천하태평춘》이었다가 1940년 《삼인장편집》에 수록되었고, 1948년 《태평천하》라고 이름을 바꾸어 동지사(同志社)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발표시기가 대체로 겹쳤던 《탁류》(1937~1938)와 함께 채만식의 2대 장편으로 분류된다. 이 작품에서는 몰락한 지주가 중요한 주제적 동력학을 이루나, 여기서의 ‘몰락’은 《탁류》와 다르게 지주 계급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중적 소망을 반영한다.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필연성의 관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작품으로는 《낙일》(1930)이 있다. 미학적으로도 이 작품은 상당한 연구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구성상으로도 이 작품은 《탁류》에 버금가는 날카로운 극적 긴장을 획득하고 있는데, 극적 ‘아이러니’라는 풍자극의 구조로서 ‘윤직원’ 일가에 일어난 하루 동안의 일상사를 중심으로 작품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리얼리즘적 척도에서도 이 작품은 중요하게 평가된다. 윤직원과 윤두수는 당시 신흥지주계급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상민 혹은 서민 출신의 부패지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계급이 식민지 지배당국과 결탁하여 이른바 ‘식민지 지주제’라는 독특한 반봉건의 지주적 현실을 만들어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성장한 계급이기에 그 일가의 일상적 삶은 윤리적으로 타락을 면치 못한다. 이 작품이 이룩하고 있는 이같은 풍자적·극적 아이러니의 미학적 달성이란 연극적 전통이 박약한 한국에서는 유일한 소설적 달성이란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적 풍자극의 관념이 그의 의식 속에서 뿌리깊게 형성되어 왔음을 《낙일》을 위시한 그의 초기 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채만식 작가의 논란

- ❶ **카프문학관련** 카프문학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1~2편의 유사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전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이해의 범위가 있다.
- ❷ **친일활동관련** 채만식은 해방후 1948년 『백민』에 게재된 단편 '민족의 죄인'에서 일제강점기하의 어려운 가계 때문에 일제가 주최한 강연회 등에 참석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를 '민족의 죄인'이라고 반성하였다.

